

# 세계인류무형유산, 진도에서 한마당

국립남도국악원 다음달 7일 '세계의 인류무형문화유산' 공연 처용무·판소리·아리랑·농악 등 우리나라 전통예술의 향연



‘처용무’ 공연 장면.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은 매년 세계적으로 10여 건 종목을 선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2022년 문화·사회적 기능을 인정받아 총 22개 종목을 명단에 올렸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인 처용무, 판소리, 아리랑, 농악 등을 감상하고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기획공연 ‘세계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오는 9월 7일 오후 3시 국악원 전악당에서 선보인다. 동시대성, 보존적 가치 등을 지닌 무형문화유산 작품들을 실연하는 이번 공연은 처용이 역신으로부터 인간 아내를 구했다는 신라 처용설화에 기원을 둔 궁중무용 ‘처용무’로 막을 연다.

궁중연례 중에서도 악귀를 쫓아내거나 설날그믐에 악귀를 쫓는 나례 의식에서 복을 기원하며 추던 춤이다.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무용수들이 오색 의상을 입고 일자진, 원진 등을 만드는 동작에는 호탕한 맛이 깃들여 있다.

처용무는 하늘 같은 생명력을 기원하는 수제천(壽濟天) 음악에 맞춰 왕을 향해 나아가는 “신라 성대소성대”로 시작한다. 무용수들은 왕(역할의 배역)을 향해 인사한 다음 향당교주와 향악, 당악을 번갈아 연주하며 무대 중앙으로 나아간다. 이후 ‘수양수무’, ‘무릎디피무’, ‘낙화유수’ 등 안무를 시연한다.

“땀자 뚱충 들어오더니 아 도련님 어찌자고 이

리시오? 내 행차는 벌써 오리정(五里亭)을 지나 시고 사또께서 도련님 찾느라고 동헌(東軒)이 발각 뒤집혔소. 어서 갑시다.”

다음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이 오리정 이별 후 집으로 돌아오는 대목’이 이어진다. 춘향이 다섯 리(2km 정도) 떨어진 정자인 ‘오리정’에 가서 이몽룡과 헤어지는 장면을 담은 작품이며 소리에 유하여, 장단에 김형주.

곡은 슬픈 이별을 상징하는 진양조에서부터 내행차(內行次) 장면을 묘사하는 자진모리, 풍류과 춘향이 간장을 녹이는 중모리 장단으로 이어진다.

“행궁견월상심색(行宮見月傷心色)의 달만 비쳐도 님의 생각/ 춘풍도리(春風桃李)의 화개아(花開友)의 꽃만 피어도 님의 생각” 등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장한가’ 속 세 구절을 인용하는 대목도 인상적이다.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민요 ‘아리랑’도 레퍼토리에 있다. 느리게 부르는 ‘긴 아리랑’부터 경기 민요인 ‘본조 아리랑’, 서도의 ‘해주 아리랑’으로 계속되는 흐름을 통해 각 지역별 음악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외 강원도, 밀양, 진도 아리랑 등도 레퍼토리에 있다.

끝으로 전문연희집단인 걸림패나 남사당패들이 솜씨를 보여주는 농악놀이 ‘판굿’ 무대를 막을 내린다. 대열을 만드는 진법놀이를 비롯해 단원들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개인놀이 등도 관객들을 만난다.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살아있는 문화’인 유네스코 종목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작품성을 관객들에게 알리는 공연이다”며 “민요, 판소리, 농악 등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예술과 그 가치가 현대 사회에도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

# 기후 위기 앞 인간과 북극곰의 우정

탄소중립뮤지컬 ‘내 친구 북극곰 발루’ 9월4일~8일 하정웅아트홀



어린이 뮤지컬 ‘내 친구 북극곰 발루’에서 어린이 관객들이 공연에 참여하는 장면. 〈플레이팩토리 제공〉

극지대를 연구하는 부모님을 따라 북극에 온 후니는 아기 북극곰 발루를 만나 특별한 우정을 쌓아간다. 후니는 빙하가 녹아가는 모습을 보며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발루가 집을 잃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후니는 북극을 지키기 위해 탄소중립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친다. 과연 이들은 삶의 터전과 우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

(주)플레이팩토리(대표 이하나)가 탄소중립뮤지컬 ‘내 친구 북극곰 발루’를 9월 4일~8일 광주교대 풍향문화관 하정웅아트홀에서 선보인다. 수~금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및 주말 오전 11시, 오후 2시 진행.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태보호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가 GREEN 미래’라는 주제로 기획한 총 3회 공연의 마지막 레퍼토리이며, 이번 무대에 앞서 해양환경을 다룬 ‘플라스틱 몬스터’, 기후환경을 초점화한 ‘무지개요정 울리

블리’를 상연했다

작품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탄소중립’ 개념을 아이들의 시선에 접목, 탄소배출량 감축이 전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임 코너도 마련하는 이머시브 뮤지컬로,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을 사유하게 만든다.

한편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주체 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상연한다. (주)플레이팩토리는 2019년부터 어린이 환경교육뮤지컬을 창·제작해왔으며 2020년 환경극 ‘라몰의 땅’, 2022년 ‘누르의 모험’ 등 다양한 작품으로 지역민을 만났다.

연출을 맡은 이 하나는 “동화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지구의 문제들을 쉽게 풀어내고자 한다”며 “어린이 관객 모두가 ‘탄소 사냥꾼’이 되는 날까지 연극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했다.

전석 4만원(13개월 이상 관람 가). 모람플랫폼 등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한·중·일 경제발전 유사성과 차별성은?

최협 전 전남대 교수 등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발간

한국, 중국, 일본은 유교적 전통을 오랜 기간 공유했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기점으로 다른 근대적 운명을 경험했다. 상이한 근대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 한·중·일 삼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일정 부분 상호 간의 유사성을 공유한다.

이들의 유사성과 차별성은 어디에서 비롯됐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할까.

한·중·일 3국의 제도들이 기능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이한 행태로 이어졌는지를 연구한 학술서가 발간됐다.

전남대 교수와 한국문화인류학회 회장을 역임한 최협 박사와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한 이흥영 박사가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제도적 기반: 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연구’ (민속원)를 펴냈다.

두 저자는 “문화의 변수가 아시아지역의 경제낙후, 경제발전, 경제 위기라는 서로 다른 현상을 설

명하는데 각기 다르게 활용돼왔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발전 논쟁에서 이 같은 양상은 지역의 문화적 논의를 보다 정교하게 재검토할 필요성과 맞물려 있다.

저자들은 한국, 일본,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관행은 복잡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세 나라가 유교 전통, 가족주의, 오랜 세월이 걸쳐 경험한 강성 국가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지만, 기업지배구조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뚜렷한 기업집단, 즉 재벌(한국), 게이레츠(일본), 차에지투안(중국)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화된 기업집단은 각국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논리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가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재벌과 연관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 은행, 정부 간의 긴밀한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데 게이레츠 시스템은 기업 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

지하게 해준다. 중국의 기업지배구조는 국유기업 SOE와 민간 기업이 혼합된 것이 특징이다.

저자들은 각각 특성을 갖는 기업집단을 동아시아 3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일부 관행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한다.

저자들은 “아시아 기업은 앵글로색슨 시스템의 단기간 수익에 집착하는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더 긴 투자 기간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시아 경영 시스템의 핵심인 네트워크, 신뢰, 집단주의는 비록 다소 수정하더라도 골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새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아시아 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 앵글로색슨 경제와 조금 더 닮아가는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이 신뢰와 창의에 바탕을 둔 투과성 네트워크의 발전을 의미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언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광주 근대건축과 남도 전통 한옥을 만나다

서구문화원 ‘광주천년의 국가유산 돌보기’ 강좌 성료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화권 내에서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이지요. 또한 집은 그 지역의 여러 생활과 문화를 반영해 주는 귀중한 역사적 산물입니다.”

26일 광주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이 ‘광주천년의 국가유산 돌보기’를 주제로 마련한 문화유산 아카데미에서 신웅주 조선대 건축학과 교수는 광주의 역사적 변천에 따른 남도한옥과 근대건축, 특히 전남도청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강의는 광주의 역사적 위치와 지도에 나타난 광주의 모습, 근대건축의 다양한 변화과정을 소개했다. 또 남도 한옥의 건축적 특성에서는 전통가옥 한옥의 구조적 특징, 공간을 이용하는 법, 외부 공간의 쓰임, 좋은 집터를 고르는 법, 한옥을 짓기

전 지켜야 할 방법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신 교수는 “남도 한옥을 평면으로 보면 나무와 영광 등 내륙에서는 홑집형, 구례와 화순 등 산간 지역에서는 겹집형, 서남부 도서해안지역에서는 까작집형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집으로 이 땅에 세워진 우리의 집을 말한다”면서 “특정 지역의 전통가옥에서 나타나는 건축의 물리적 형태나 성격은 그 지역 고유의 것으로, 특유의 형태나 특성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9월 30일(월) 문화유산 아카데미는 신웅주 교수의 ‘현장에서 본 주거 유산의 보존’을 주제로 현장 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